

채만식의 몸과 질병

- 수필을 중심으로 -

곽상인(서울시립대)

< 목 차 >

1. 서론
2. '하비투스 프티시쿠스'로 향하는 몸과 질병
 - (1) 신경쇠약과 불면증
 - (2)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 (3) 소화불량(위장병)과 이명(환청)
 - (4) 늑간신경통(담)과 폐결핵
3. 결론

국문초록

생전에 채만식은 수많은 질병을 앓다가 급기야 폐결핵으로 유명을 달리한 작가로 알려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의 수필(잡문)에 나타난, 그가 겪었던 '질병'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채만식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수필에 주목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인 진술로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르이기 때문이다.

채만식은 중학교 시절부터 신경쇠약으로 고생했으며, 그것이 고질이 되어 성장하면서부터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소화불량(위장병), 이명(환청), 담(늑간신경통), 폐결핵 등에 시달렸다. 이에 본고는 채만식의 삶과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그간 문학적 혹은 은유적으로만 접근해왔던 분석방식과 다르게, 실제 그가 앓았던 병들을 의학적 지식과 접목하여 살폈다.

'채만식'과 '질병'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서히 병들어가는

몸을 통해 아이덴티티를 확보해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픈 몸을 통해 자기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의 소통을 이뤄내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찰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채만식의 몸과 질병을 의학적으로 바라본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논문은 문학과 의학을 접목한 융복합적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절망의 언어가 직설적 내지는 상징적으로 활자화된 것이 바로 채만식의 질병에 대한 기록이었다.

핵심어 : 채만식, 신경쇠약, 불면증, 우울증, 소화불량, 이명현상, 늑간신경통, 폐결핵

1. 서론

채만식(1902~1950)은 이광수의 추천으로 1924년 12월 『조선문단』에 단편 「세 길로」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그가 글을 썼던 주 무대는 신문사나 잡지사라 할 수 있는데, 이직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1936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리얼리즘과 풍자, 해학을 넘나들면서 글을 쓴 그는 붓끝의 힘으로 자신과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하고 절실한 현실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가 써낸 글은 당대의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거나 지식인의 고뇌를 잘 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유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난 채만식은 1922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학생 생활을 하지만 이듬 해 관동대지진과 아버지의 가산 탕진 때문에 귀국한다. 약관에 이르러 은선홍과 결혼하나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 당시에 만났던 숙명여고 졸업생 김씨영과 연애하며 동거한다. 그러나 채만식의 마음은 늘 C라는 여성에게로 향해 있었는데, 이 여성과 이른바 플라토닉 러브를 했다고 전해진다.¹⁾

본고에서 주목하는 점은 1930년대 이후 본격적인 글쓰기에 돌입하면서부터 그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온갖 경중의 질병을 안고 살았다는 데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후세들은 그의 대표적인 표정을 활짝 웃는 미소로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사 재직 시 장충단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말하는 것인데, 검은 중절모에 모던한 코트를 입고 넥타이를 단정하게 댄으며, 지팡이를 짚고 오른 다리를 빼떡하게 하고서 앞니가 하얗게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는 그의 표정, 그리고 깔끔한 매무새는 너무나도 인상적이다.

그렇다면 채만식에게 덧씌워진 질병, 그러니까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질병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채만식은 신경쇠약, 신경통,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환청과 이명, 소화불량, 담(늑간신경통), 폐결핵 등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다. 그의 질병은 그 스스로가 기술한 수필에 대개 언급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채만식의 수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작가들이 써 내는 수필에는 시나 소설, 희곡과는 다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드러내기 때문에 픽진성의 강도가 여타 장르보다도 강하다고 하겠다. 수필문학은 자기 고백적인 성격 덕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진실’에 가깝기에 그러하다. 때문에 채만식의 수필은 삶의 치열한 진술이자 기록이며, 각색이나 여과 없이 드러낸 욕망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작가의 세계관 내지는 작품관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문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필에 대한 주목이 부족했음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²⁾

채만식의 수필에 대해 처음 접근한 논문은 김상선의 글이라 하겠다. 김상선은 채만식의 수필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또한 그와 관련한 주변인들의 발언을 참조하면서 채만식의 삶을 재조명(재구성)했다.³⁾ 또한 최현식은 채만식의 수필을 니힐리즘의 문학성, 카프작가와와의 대립, 친일의 논리로 설명했으

1) 김상선, 「채만식론-특히 그의 생애와 성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20), 중앙어문학회, 1987년 3월, 19-23쪽.

2) 수필문학의 가치에 대해서는 허만옥의 「수필문학의 이론과 비평, 학술연구의 진단과 방향」(『어문론집』(제71집), 중앙어문학회, 2017년 9월, 242쪽)을 참조 바람.

3) 김상선, 앞의 글.

며,⁴⁾ 김홍기는 ‘그의 수필에는 자연 예찬, 여성에 대한 사랑, 질병으로 인한 고뇌와 문학적 열정으로 인한 고뇌, 동양적 윤리관에 대한 비판의식이 담겨 있음⁵⁾을 밝혔다. 또한 공종구는 채만식 수필의 특성을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되는 양가적 고향, 둘째 타나토스 충동으로서 가난과 병고, 셋째 문학에 대한 열정과 의지⁶⁾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김미영은 ‘프로문예론과 민족주의 문학론의 문제, 당대의 결혼, 취업, 청년, 신여성과 구여성의 문제를 채만식이 다루었다’고 정리했다.⁷⁾ 허만옥은 채만식의 수필을 통해 ‘생활고의 비애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 카프와의 갈등, 문학의 태도 및 창작 방법에 대한 이념⁸⁾을 읽어냈다.

본고에서는 앞선 연구자들의 결과에 주목하면서 그간 비교적 가볍게 다루어졌던 채만식의 질병을 의학과 접목하여 살피고자 한다. 다시 말해 채만식의 삶과 질병을 문학적으로만 접근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가 앓았던 병들을 의학적 지식과 접목하면 그의 몸과 질병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이 글은 기획되었다. 왜냐하면 ‘의학은 문학과 흡사하게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와 밀접하게 관련되고 문화적 가치나 이데올로기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인간이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여 환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면 ‘치료적 동맹관계를 확립’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인간존재에 대한 자기성찰’이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쓴 이야기를 읽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문학과 의학이 서로 보완하면 고차원적 상상력이 발휘⁹⁾될 수도 있다.

4) 최현식, 「문학가의 이상과 생활인의 비애」, 문학과사상연구회,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1999, 182쪽.

5) 김홍기,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2001, 391-442쪽.

6) 공종구, 「채만식의 산문 연구」, 『현대소설연구』(제6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년 12월, 5쪽.

7) 김미영, 「채만식의 수필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제23집), 숭실대 한국문화과예술연구소, 2017년 9월, 253-286쪽.

8) 허만옥, 「채만식 수필에 대한 근대성 기제와 현재적 함의」, 『우리문학연구』(제57집), 우리문학회, 2018년 1월, 449쪽.

9) Anne Hunsaker Hawkins and Marilyn Chandler McEntyre 외, 『문학과 의

따라서 본고에서는 채만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질병에 주목하고자 한다. ‘채만식’과 ‘질병’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서서히 병들어가는 몸을 통해 그가 아이덴티티를 확보해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픈 몸을 통해 자기 내적인 세계와 외적인 세계의 소통을 이뤄낸다. 본고의 의도가 채만식의 몸과 질병을 탐색하는 것이기에 병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채만식이 기술했던 질병이 정체성과 문학창작 내지는 생활적인 면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질병은 연속선상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2. ‘하비투스 프티시쿠스’로 향하는 몸과 질병

‘인류의 역사는 질병의 역사이자, 그 질병에 대한 극복과 좌절의 역사이다. 인간의 개인적 집단적 고통 가운데 질병만큼 시공을 초월해서 인류를 괴롭혀 온 것은 없다.’¹⁰⁾ 이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질병에 주목할 이유가 충분하며, 그렇기에 본고에서 살펴볼 채만식의 몸과 질병은 곧 그의 역사를 더듬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은 생사를 결정지을 만한 질병을 앓으면서 유한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라 하겠다. 죽음의 문제는 두렵고도 너무나 강렬해서 이에 직면하면 자신의 몸(건강)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재난이나 사고에 의한 죽음은 전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질병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에 몸에 대한 성찰이 절실해지는 것이다. 채만식은 내부에서 비롯한 질병을 앓았던 인물이라 하겠는데, 많은 병원균을 몸속에 지니고 있었으나 제때에 치료를 하지 못한 탓에 면역력이 떨어져 급기야는 폐결핵으로 생을 마감¹¹⁾했다.

학교육』, 신주철 외 옮김, 동인, 2005, 13-29쪽.

10) 황상익, 『콜럼버스의 교환』, 을유문화사, 2014, 35쪽.

11) 채만식은 유언을 통해 ‘상여는 리어카 상여를 쓰고 화장을 하되 유골은 바다에 뿌려달라’고 청했다. 실제로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이무영, 신석정 등 동료

채만식의 병력은 잡지사사과 신문사를 오가면서 업무에 시달리고 다양한 필명을 써가면서 글을 써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비롯되거나와, 이미 중학시절부터 앓았던 신경쇠약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그의 본래적인 체질 자체가 이미 병적인 신체를 타고난 탓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축구를 좋아해 중학시절부터 선수 생활을 했고, 와세다대학 부속 제일고등학교 재학 중 축구경기에서 우승했을 당시만 해도 얼굴에 살이 붙어 제법 통통하고 덩치도 있었다. 그 후 1930년 무렵 잡지사사과 신문사를 오가던 때에는 많이 야위었다. 이는 ‘생활(생존)적 글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면증, 그리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비롯된 불안정한 생활이 그의 안색을 병마로 물들게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던 결혼의 실패와 가문의 몰락, 생활고와 온갖 질병이 채만식을 불운한 처지로 몰아갔던 요인이라 하겠다.

채만식이 발표한 수필에는 여러 주제가 담겨있으나 본고에서는 ‘질병 서사’에 집중하고자 한다. 채만식의 몸과 질병을 의학적으로 바라본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기에, 이 논문은 문학과 의학을 접목한 융복합적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요컨대 채만식이 겪었던 질병과, 이를 육화하면서 이해했던 근원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질병 서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경쇠약과 불면증

채만식은 중학교 때부터 신경쇠약으로 앓았고, 그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지속적으로 힘들어했다. 채만식이 쓴 「신변잡초」(『중앙』(1936년 9월)¹²⁾를 보면, 그의 신경쇠약이 중학시대(1914~1918년, 13~17세 사이)부터 지속된 고질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후 질병과의 싸움은 다양한 형태로 변

문인들은 손수레로 상여를 쓰고 관 위에다 산국화, 들국화를 뿌렸다고 전한다. 김태완 (정리), 「최초 공개하는 채만식의 유언장: “상여는 리어카...조문은山野 꽃 한다발 가지고 오시든가”」, 『월간 조선』, 2015년 12월, 481쪽.

12) 채만식, 『채만식 전집 10』, 창작과비평사, 1989, 547~551쪽. 이하 작품제목 및 인용, 출처를 표기할 경우에는 본문에 (전집 권, 쪽수)의 형식으로 기재함.

형되어 지속·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질병에 대해 언급한 그의 글은 「추야단상」(전집 10, 257~258쪽)이다. 이 글은 『학생』(1930년 9월)에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채만식은 불면증으로 인해 건강에 악신호가 왔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때부터 채만식은 본격적으로 결핵성 체질인 ‘하비투스 프티시쿠스’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2세기에 글을 쓴 알렉산드리아의 아레타에우스는 19세기 의사들이 ‘결핵성 체질’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인 ‘하비투스 프티시쿠스’에 관해서 서술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폐결핵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몸집이 여윈 편이고 목이 튀어나오고 양쪽 어깨뼈 역시 날개처럼 앞으로 튀어나왔으며 피부빛이 창백하고 가슴이 좁다’는 것이었다.¹³⁾

밤낮없이 자리에 누워있기 때문에 줄곧 이몽가몽하느라 제대로 옹게 수면을 하지 못해 나의 또 하나의 고질인 불면증이 와락 도지고 따라서 신경쇠약이 병발이 되고… 불면과 신진대사의 부조가 생리를 생으로 늡히게 하는 것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함이 아니나 이번처럼 심한 피해를 입기는 처음이다. 얼굴이 시들부들 피부엔 탄력이 빠져 낡은 양피 같은 팔새라니 환갑 진갑 다 지난 영감 모양이다. 아마 체중으로 해도 그동안 두 관은 실히 준 성싶다. 본이 도통해야 14관 반이 될까 말까 한 몸인데 말이다.(전집 10, 402~403쪽)

위 내용은 채만식이 『조광』(1940년 4월호)에 발표했던 「병여잡기」(전집 10, 400~405쪽)의 일부이다. 이 글에서 채만식은 자신의 몸 상태와 앓고 있는 (고)질병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채만식은 ‘하비투스 프티시쿠스’와 유사하게 몸집이 많이 야위었고 오목가슴이기에 가슴과 어깨가 상대적으로 좁고, 그래서 양쪽 어깨뼈가 날개처럼 튀어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무렵 잡지사사와 신문사를 오가며 과로에 시달린 탓에 피부는 탄력을 잃었고, 병색이 완연하게 변해갔던 것이다. 신경쇠약과 불면으로 인해서 피부빛이 창

13)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더스, 『질병의 역사』, 김훈 옮김, 가람기획, 2004, 255쪽.

백해졌을 것임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진대사 부조와 체중 감량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체중 감량에 대한 부분인데, 위 글에서의 관(貫)은 무게의 단위로 한 관은 3.75kg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채만식이 스스로 14관 반이라고 자신의 몸무게를 기술하고 있는데, 이를 계산하면 54.375kg이 나온다. 이마저도 질병으로 인해서 약 7.5kg이 빠졌다고 하니, 그 고충은 충분히 짐작된다. 요컨대 체격 자체가 마른 편이고 신경이 예민하고 또한 본질적으로 약체이기에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을 것이고,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잠자리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머리가 맑지 못해 고생을 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채만식은 서서히 폐결핵 체질인 ‘하비투스 프티시쿠스’로 변해갔던 것이다.

또한 「작가 단편 자서전」(채만식 전집 9, 501-502쪽)은 『삼천리문학』(1938년 1월)에 실린 글인데, 여기에서도 채만식의 신경쇠약 증세가 보인다. 채만식은 자신의 성격과 외모, 연애편, 문학을 하게 된 동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마음에 들었던 승지(勝地) 등을 이 글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30세 전후의 장년시대에는 교원, 신문기자, 잡지사 등등 이직을 반복했고, 40세 전후로 문학에 대한 야심을 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불안정한 사회생활로 인해 ‘신경질’이 과도히 극에 달았다는 점이다.

신경쇠약(neurasthenia)은 의학사전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만성적인 피로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동통을 호소하는 증상’을 말한다. 따라서 이 증상이 심해지면 내외적으로 과민해지고, 불면증을 동반할 수가 있다. 특히 도덕적으로 자기검열이 심할 경우 신경쇠약 장애가 발생한다. ‘도덕적 불안은 초자아와 자아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덕적 기준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유발된다. 지나친 도덕적 불안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신경쇠약을 초래한다.’¹⁴⁾

채만식은 성격이 지나치게 예민하고 극심한 결벽증이 있었고, 게다가 너무 꼼꼼하게 글(기사)을 썼기 때문에 자기검열이 심해서 신경쇠약에 걸릴 확

14) 김춘경 외 4인, 「신경쇠약」,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물이 높았다. 또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겪는 글쓰기의 고충과 잦은 이직의 경험은 그를 불안한 존재로 몰아갔던 것이다. 생전에 그는 극심한 결벽증과 신경의 지나친 예민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고 백철은 회고한다. 백철은 채만식이 ‘생김새부터 수척한 몸체, 뾰족한 얼굴 모습이 여간 신경질적’이며, ‘그의 결벽성, 모진 성품’ 때문에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상례’였으며, 급기야는 ‘이놈 저놈 언성이 높아지고 재떨이가 날으고 하는 촌극이 벌어지곤’¹⁵⁾했다고 전한다. 특히 ‘글을 쓸 때에도 단어 하나에 신경을 쓰고, 그 낱말이 풍기는 뉘앙스를 염두에 두면서까지 글을 써’¹⁶⁾ 『제일선』을 편집할 당시에는 ‘면도칼’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도 전해진다.

다음으로 불면증은 신체적·정신적인 면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질병이라 하겠다. 채만식은 스스로 예민해서 가족 내에 소리가 크게 들리면 불안하고 불쾌해했다는 자기 고백을 수필에 기술했다. 불면증 환자들이 보이는 성격적인 특성은 꼼꼼하다거나 예민하다거나 걱정이 많다거나 하는 것이다. 이들의 뇌를 검사해보면 긴장 뇌파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뇌파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뇌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인 동시에 뇌가 지치고 피로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불면증 외에도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불안증, 우울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¹⁷⁾

이렇게 ‘하비투스 프티시쿠스’로 악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채만식이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고백적 서사는 수필에 기술되지 않는다. 다만 김용성에 따르면 ‘1946년 경 이리(익산) 호남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커피를 좋아했고, 원장 윤부병 장모에게서 양젓 한 대접 달라는 것을 좋아했다’¹⁸⁾고 한다. 이전까지의 기록을 보면 채만식은 스스로 아프다고 할지라도 집에서 버티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여 복용하는 정도에 그쳤던

15) 백철, 「1930년대 문단/문단회고」, 『인간 탐구의 문학: 백철문학선』, 창미사, 1986, 228-229쪽.

16) 이무영, 「채만식의 인간과 문학」, 『서울신문』, 1956년 4월 6일자.

17) 신흥범, 『불면증, 당신도 치료될 수 있다』, 소라주, 2015, 102-106쪽.

18) 김용성, 「문학사탐방1-채만식의 탁류 선창」, 『한국일보』, 1972년 10월 15일.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채만식은 자신의 불면을 호소하는 글을 주로 7월과 9월 사이에 발표하는데, 이는 환경적인 요인과도 맞물려 해석할 수도 있다.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는 때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이다. 우리 몸은 열을 만들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그 열을 방출해야 한다. 따라서 체온조절이 중요한데,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 몸에서 열이 방출되는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¹⁹⁾

이와 같은 불면의 상황은 지속되고 악화되면서 이후 여러 편의 글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추야단상」(전집 10, 257~258쪽)은 『학생』(1930년 9월)에 실린 글이다. 이 글에서는 초저녁부터 잠을 청하려 하는데, 이러저러한 공상이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숙면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신변잡초」(전집 10, 547~551쪽)는 『중앙』(1936년 9월)에 실린 글로,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이 내용 중 ‘건철야’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또한 「현대작가 창작고심 합담회」(채만식 전집 9, 537~547쪽)는 『서해공론』(1937년 1월호)에 실린 글이다. 채만식, 이효석, 엄홍섭 등이 합담한 것으로, 창작활동 당시의 고심담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도 채만식은 문장에 대한 고민, 독서와 문장작법, 독자 인식, 집필 시간 때문에 불면증이 극심해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채만식은 자신의 불면증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탓에 여러 합병증을 유발시켰으며, 이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수면제와 알코올을 과다 복용하게 된다. 수면제와 술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이루기 위해 찾는 것들인데, 이 두 가지 물질은 뇌(활동)를 억제한다. 따라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뇌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심할 경우 멈추게 된다. 호흡을 담당하는 뇌가 억제되면 호흡이 멈추게 된다.²⁰⁾ 그런데 불면의 고충은 더 강한 수면제와 과다한 알코올 섭취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증세가 심해지면 채만식은 수면제²¹⁾ 처방을 갈수록 강하게 받게

19) 신흥범, 앞의 책, 110쪽.

20) 위의 책, 151-152쪽.

21)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마취성 모르핀(꿈의 신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의 원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의 치사랑에 가까운 양을 먹다 보니, 일종의 마비증이 생겨서 철야를 하게 되었다고까지 고백하고 있다. 그리하여 환청 증세까지 더해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쫓아가 밖으로 나가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채만식의 상태는 졸피렘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중독으로 봐야 할 것이다. ‘졸피렘은 비교적 안전해서 불면증 환자들에게는 자주 처방되는 수면제이기도 하나 이 약물이 맞지 않으면 몽유병이 나타날 수도 있’²²⁾다.

(2)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

채만식은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동시에 우울증까지 동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수면을 위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 띤다. ‘우울증은 기분이 저하되어 삶에 대한 의욕과 흥미를 잃고 자신에 대한 죄의식 혹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을 나타내는 정신 증상 혹은 질환²³⁾을 일컫는다. 특히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감이 커지고, 그것이 불안과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만든다. ‘질병으로서 우울증은 원인, 증상, 경과 그리고 치료반응 등으로 이루어 단일 질병이 아니고 증상군으로 간주되며, 그 원인으로 심리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관여’²⁴⁾한다. 특히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직면한 개인의 경우 절망감을 경험하고 나아가서 우울증으로까지 발병’²⁵⁾한다.

인 양귀비 씨앗에서 수면제 물질을 추출해냈다. 중세 시대에 수면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양귀비 추출물과 알코올을 섞은 강력한 카테일에 담근 형질을 입으로 빨았다고 한다. 빌 헤이스, 『불면증과의 동침-어느 불면증 환자의 기억』, 이지윤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8, 306-307쪽.

22) 신흥범, 앞의 책, 149~150쪽.

23) 홍윤철, 『질병의 탄생』, 사이, 2014, 332-345쪽.

24) 박영남, 「절망감 우울증: 의미있는 우울증의 아형인가?」, 『신경정신의학』(44권4호, 2005년 7월, 425쪽.

채만식은 실제로 두 부인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고, 부친의 파산 문제로 생활이 힘들어졌으며, 글을 쓰고 창작하는 과정에서 불면을 겪었다. 삶에서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우울증은 심해졌고, 이를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하고자 알코올에 의존했던 것이다. 특히 그의 말년에는 질병이 악화되었고, 가족의 죽음까지 겹치면서 점점 삶을 낙망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45년에 아버지가 별세하고 ‘장남 무열이 병사했으며 1947년 모친이 별세하고 자신 또한 폐결핵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중²⁶⁾이었기에 현실적 고충은 컸던 것이다.

우울증의 강도와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은 「저회미암의 발원」(전집 10, 302~303쪽)에 나온다. 이 글은 『조선일보』(1934년 12월 11일)에 실렸는데, 채만식은 우울증과 창작에 대한 고통을 강하게 토해하고 있다. 그는 1934년 7월 이후부터 ‘창작은 고사하고 수필 한 토막 변변히 쓰지 못하였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 ‘알코올의 자극을 받으면 우울이 울분에도까지 폭발한다’(전집 10, 302쪽)고 한다.²⁷⁾ 그 이유는 본디 자신이 만든바, 밤을 새워 술을 마셨기에 글쓰기에 대한 천착과 탐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포도주」에도 채만식의 알코올에 대한 의존도가 묘사된다. 「포도주」(전집 10, 351~352쪽)는 『매일신보』(1939년 7월 23일)에 발표한 글이다. 이 글에서 채만식은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 건강에 악신호가 와서 쇠약해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채만식의 친구가 포도주를 마셔보면 불면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며칠 마셨더니 효능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채만식은 ‘한 잔 마시면 잠들기가 수월하고, 잠잘 때 부대끼는 일이 사라지고, 잠이 부족해도 피로가 잘 회복되는 점’(전집 10, 351쪽)을 들어 포도주의 효능에 감탄했다.

본디 채만식은 술을 잘 하지 못하는 체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친구의 권유로 그 감칠맛과 효능, 포도주의 색채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실제

25) 위의 글, 427-428쪽.

26) 김상선, 앞의 글, 32쪽.

27)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더스, 앞의 책, 242쪽.

로 알코올은 잠을 오게 하는 작용을 한다. 각성을 담당하는 뇌 기능을 억제해 긴장을 줄여주고 잠이 오도록 만든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잠에 들면 알은 잠을 자게 된다. 그리고 알코올이 분해되면 뇌는 다시 각성 상태가 되어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²⁸⁾ 따라서 알코올은 되레 숙면에 방해가 되는 약품이자 가장 질 낮은 수면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술은 신경계 및 정신과적인 영향을 많이 준다. 특히 과도한 음주가 지속되면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경병증이 나타난다. 또한 뇌에도 영향을 주어 알코올성 치매가 올 수도 있다. 알코올은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만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어서 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²⁹⁾

「잃어버린 10년」(전집 9, 503~515쪽)은 『조선일보』(1938년 2월 18일~1938년 2월 26일)에 연재한 글이다. 1937년 말부터 원고를 쓰는데 날을 새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이 무렵 채만식은 불면증에 대한 ‘인지적 왜곡’³⁰⁾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신의 불면증이 고질병이며 결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고, 자신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불면증 때문이라는 생각을 채만식이 했을 것이다. 또한 채만식은 『조선일보』에 『탁류』를, 『조광』에는 『태평천하(춘)』를 동시에 연재해야 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글을 쓰는 것은 물론, 땀 나무와 먹을 양식, 빛, 가족들의 병을 걱정해야 했던 그는 스스로 예민해서 가족 내 음성이 높거나 하면 기분이 불쾌해져서 불안이 커졌다고 한다. 두 작품을 동시에 써야 했던 채만식은 소설의 주인공이 다르고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한 작품에 대한 생각을 집요하게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수필이나 잠문을 쓸 때 채만식이 필명을 사용했다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채만식이 필명을 쓴 경우는 주로 수필이나 그 밖의 잠문에서였으며, 필명을 사용한 이유는 여러 잡지의 편집을 맡았고, 그만큼 써야 할

28) 신흥범, 앞의 책, 122-123쪽.

29) 홍윤철, 앞의 책, 163쪽.

30) 신흥범, 앞의 책, 114쪽.

글들이 많았던 때문이고, 또한 카프의 검거 당시 검열을 피해서 글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잡지사의 적은 월급으로는 생활을 원활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터이기도 하다. 이에 채만식은 ‘화서’, ‘백룡’, ‘채옹’ 외에도 ‘백룡생’, ‘호연당인’, ‘활빈당’, ‘운정거사’, ‘북옹’, ‘북옹생’, ‘단.S’, ‘쌍.S’ 등의 다양한 필명을 사용³¹⁾했으며, 탐정소설인 『엄마』(1934년 5월 16~1934년 11월 5일, 총 124회 『조선일보』에 연재)를 쓸 당시에는 ‘서동산’³²⁾을 썼다.

채만식은 스스로 문학활동을 했던 10년 세월의 허망함을 토로한다. ‘1934년 갑술 그 무렵으로부터 거슬러 10년 내 생활태를 분류하면 3년 가량이 전후 두 번의 신문기자요, 같은 3년 가량이 잡지 편집원이요, 그 나머지 4년 가량이 2, 3차의 실업기간’(전집 9, 509쪽)이었다는 것이다. 신문기자로 생활할 적에는 문학을 등한히 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업 기간에는 생활이 궁하니 까 부지런히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3) 소화불량(위장병)과 이명(환청)

채만식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생활고 때문에 소화불량을 달고 살았다. 체중이 심하면 오목가슴 밑이 답답하고, 배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초래하고, 그래서 늘 속이 부글부글하다는 기록이 나온다.

겉은 멀쩡하다는 것도 잠시요 하루 이틀 닳새 1주 이렇게를 밤이고 낮이고...가만히 누워만 있으려즉 차차로 여러 가지 탄 병이 따라서 생기기 시작했다. 체중이 심하여...늘 오목가슴 밑이 답답하다. 게다가 대장이 태업을 하여 1주일 이상씩 배설을 못하니 장내엔 독소가 부글하글 고이고 자가중독으로 가지각색의 생리적 변조가 인다.(전집 10, 402~403쪽)

‘소화불량은 궤양이나 담석 등과 같은 기질적인 문제 없이, 반복적으로 윗

31) 김흥기, 앞의 책, 13-39쪽.

32) 채만식, 『채만식 전집 1-인형의 집을 나와서/엄마』, 창작사, 1987, 300쪽.

배에 한정된 증상을 호소하는 소화기 기능성 질환'이다.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식후 충만감, 조기 포만감, 상복부 통증, 상복부 쓰림'이 주된 증상이라 하겠다. 이 질환은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치료해야 할 질병인 것이다. 이러한 소화불량이 다른 소화기관과 연결되어서 질병을 일으킬 때 '중복 증후군'이라 한다. 이때에는 '불안, 신체화장애, 불면 등의 정신건강의학적 문제가 보다 긴밀하게 연결'³³⁾ 된다. 따라서 소화불량은 채만식의 육체에 장애를 일으켰고, 궁극적으로는 정신의 문제로까지 파고들어 그를 괴로하게 변모시켰다. 생활고로 인해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탓도 있었던 것이다. 그의 결벽증도 소화불량에 일조한다. 이무영의 기록에 의하면 '만주인들이 드나드는 음식점에 들어갈 때는 수건으로 손잡이를 싸서 쥐는' 결벽증 환자였고, 오른손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는 왼손을 썼고 식후 소화약을 먹었으며, 감기예방약을 먹고서야 자리에 들었다'³⁴⁾고 한다.

소화불량과 더불어 채만식은 이명(환청) 때문에 불면증과 신경쇠약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다듬이」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다듬이」(전집 10, 336~339쪽)는 『조광』(1938년 11월)에 발표된 글이다. 이 글에는 청각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채만식의 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된 내용은 세를 들어온 집의 아기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우는 바람에 창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기가 우는 동안에 자신은 원고를 집어던지거나 잠을 설치거나 어렵게 만든 캐릭터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고충을 기술해놓았다. 게다가 그 가정에서 나는 다듬이 소리에 채만식은 너무 예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애기 우는 소리와 다듬이 소리 이 두 가지는 나에게 천하 무서운 대적(對敵), 아니 대적(大賊)이다. 울지 않는 애기와 다듬질 않는 여자가 있다면 나는 없는 포켓이나마 있는 대로 털어서 두 개의 송덕비를 종로 인경전 앞 한복판에다가 세워주리라고 하늘에 맹세한 적도 있다.(전집 10, 336~339쪽)

33) 송경호, 「기능성 소화불량증」, 『정신신체의학』(24권1호), 2016년 4월, 3-8쪽.

34) 이무영, 앞의 글.

잠을 청하던 창작을 하든 뭔가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주변환경이 그러지 못했음을 위 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청각에 대한 예민함은 환청과 이명을 불러일으킨다. 환청의 경우 '정신분열병에서 망상, 연상의 이완 등 사고장애와 함께 주요 진단 기준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정신분열병에서 나타나는 환청은 흔히 사람의 말소리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말소리와 같이 조직화된 형태로 들리는 것 이외에도 음악소리와 같이 부분적으로 조직화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전혀 조직화되지 않은 형태인 물 흐르는 소리, 기계소리, 바람이 스치는 소리 등과 같은 잡음의 형태'³⁵⁾로 들리기도 한다.

「신변잡초」(전집 10, 547~551쪽)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채만식의 머릿속에는 원고를 쓰겠다는 신념밖에 없는데, 그의 귓속에서는 재즈가 들리고, 끌로 컷속을 파는 듯이 아프고 육신거리는 느낌이 난다. 그래서 잠을 청하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칼모친이나 아다린 같은 것이면 0.25cc가 보통의 분량인데, '0.75cc까지 먹은 일이 있었다'(전집 10, 550쪽)고 한다. 그러한 고통은 곧 환각과 환청을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날에는 확실히 귀에 익은 소리가 나기에 밖으로 나갔다가 헤매고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거처한 집에서 창신동 이화동에 이르기까지 뛰어갔다가 온 고통도 「신변잡초」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명은 타인이 들을 수 없는 내적 청감각으로 정의되며 이는 실제 음원이 있는 '객관적 이명'과, 음원이 없으면서도 계속 들리는 왜곡된 지각인 '주관적 이명'으로 분류'³⁶⁾된다. 채만식의 경우는 '다듬이 소리'라는 객관적 이명과 '재즈음악', '익숙한 음성' 등과 같은 주관적 이명을 동시에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글을 쓰는 창작자에게 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또는 글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그만큼 올바른 정신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도 채만식은 고통스럽지만

35) 이강욱, 「환청을 호소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이과학적 평가: 예비연구」, 『정신병리학』(제12권 1-2호),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2003년, 50쪽.

36) 위의 글, 50쪽.

작가로서의 품위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4) 늑간신경통(담)과 폐결핵

채만식은 폐결핵으로 죽기 직전에 늑간신경통을 앓았다. 이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못한 탓에 그것이 노후성 폐결핵으로 발전되어 사망했던 것이다. 이 병이 구체적으로 발발한 시점은 1935년으로 기록되고 있다. 「단장 수삼재」(전집 9, 484~494쪽)는 『조선일보』(1935.12월21-22,25,27-28일)에 발표한 글이다. 이 글은 총 4장으로 구성(저무는 세색 기타, 문충이란 존재, 소주관의 죄, 여행여담)되어 있다. 이 중에서 4장 ‘여행여담’을 보면 채만식이 평소에 신경통을 앓고 있었던 흔적이 보인다. 신경통은 보통 ‘담(痰)’이라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원인을 알 수가 없이 사지(四肢) 중에서 어디가 아프게 되면 신경통이라 말한다. ‘신경통은 어떤 신경의 주행에 따라 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어떤 압통점을 누르면 그 아래의 신경 주행에 따라 통증이 일어나는 특징’³⁷⁾이 있다.

채만식 스스로도 늑간신경통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 「병여잡기」에서 그는 추위를 몹시 타는 체질 때문에 겨울이 오는 것이 두렵다고 술회하고 있다. 얼마나 추위를 많이 땀으면 양서류가 되고 싶다고 말하겠는가. 하물며 엽서 한 장조차 구슬대필을 할 정도였다 하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방의에서는 담(痰)이라고 일컬고 신의학의 소위 늑간신경통이란 자로 그 앓기에 심겁고도 고약스런 품이, 그리고 한번 얻어만 걸리는 날이면 평생 고질이었지 좀처럼 근치가 되기 어려운 품이, 아마 치질이나 꼬노리아(ゴノリヤ, 고너리아, 임질-인용자) 따위의 다음은 가계시리 악질의 악질일 것이다. 내가 최초 이 병이 발병되기는 지나간 올해년이니 그러저럭 6년 전인 듯싶다.(전집 10, 400쪽)

37) 『한국생약보』(제214호), 1997년 3월 1일자, 8면.

채만식은 1940년 초 경성과 전남 사이를 일주일 동안 여행했는데, 그 여독으로 50여 일을 앓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병이 발병되기가 6년이 지났다고 하니, 1934~5년부터 채만식은 담에 걸려 고생을 해왔던 것이다. 채만식은 <조선일보>에 재직 당시 함북 회령의 계림탄광을 취재하러 갔다가 병을 앓았다. 마치 귀신이 붙은 것처럼 젓가슴 밑개의 통증이 심했는데, 종로의 민중의원 유석창에게 전화해 늑간신경통임을 확인했다고 전한다. 이 병은 냉습한 처소에서 장시간 머물게 되면 생기는 병이다. 따라서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거나 환부에 송진을 붙이고, 사로메틸(도포약, 살리실산(salicylic acid))을 바르면 대체적으로 일주일 안에 낫는다. 그러나 채만식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고 생활 속에서 여러 질병과 싸우며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병후기」(전집 10, 407~409쪽)에서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이 글은 『매일신보』(1940년 5월 10일)에 발표된 것으로, 앞서 쓴 「병여잡기」의 속편이라 할 수 있다.

살쩍은 이미 귀를 반이나 덮고 앞머리는 그 무성하게 자라 흐트러진 놈이 정수리를 넘어서는 참새 등우리처럼 방식이 지었다. 문명스럽지 못한 봉발하며 또는 부석부석한데다가 핏기와 기름이 발아 낡은 양피처럼 구긴 얼굴하며 폭 꺼진 눈시울하며 등속은 그러나 차라리 무던한 편이요, 제일 절끔한 것이 무언고 하면, 위아래 턱의 이른바 수염 체껏이다. 위아래치를 세자면 셀 수 있을 만큼 오다가다 성깃 성깃 하나씩 들썩 난 그 모양에 노랑기는 왜 그대도록 노란지……수염이라기보다는 흉년 탄 머리뿌렁구랬으면 좋겠는데.(전집 10, 408쪽)

채만식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딱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늑간신경통은 경완증후군이나 요통증과 같이 흉부가 아프지만, 확실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고 식욕을 잃어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한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빈혈이나 류마티즘 등의 전신질환의 이환, 바이러스 또는 세균 감염 후의 독소, 신부전증, 알코

을 중독 등의 말초신경병증, 한냉, 외상, 늑간부의 섬유조직염, 종양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통증이 지속되면 심호흡이나 기침으로도 통증이 유발³⁸⁾된다. 실제로 늑간신경통의 원인이라 언급한 증상들이 채만식의 수필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또한 「안양 복거리」(전집 10, 409~422쪽)는 『매일신보』(1940.6.5.~6.8, 6.10~6.11)에 실린 작품이다. 이 글에서 채만식은 ‘위장이 약하여 보리를 반 썩이 정도라면 그럭저럭 못 먹을 것까지는 없으나 그 이상은 건강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처지’(전집 10, 419쪽)이며, 소화불량도 있어서 힘들다고 토로한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과민성대장증후군, 크론씨병 등 만성적인 장 질환이 악화된다. 이때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통, 속 쓰림³⁹⁾ 등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수많은 질병들이 축적되면서 채만식은 폐결핵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그의 수필 중 자신의 증상을 ‘폐결핵’이라고 확정한 글(내용)을 찾기가 어렵다(쉽지 않다). 다만 당시 같은 근대공간을 살았던 공장지대 여공의 얼굴을 본다는가 문우였던 유정의 죽음을 알았을 때 폐결핵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본인은 기침과 재채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감기 증세로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폐결핵에 이르러 죽게 되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싶었거나, 죽음으로 향하는 자신의 몸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나 하는 무의식이 작동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채만식이 왜 자신의 폐결핵에 대한 언급을 삼갔는지, 이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1920년대 말 결핵은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시키는 참혹한 질병으로 인식되었다. 그 이유는 결핵 바이러스를 치유할 약품이 딱히 없었던 때문이기도 하다. 단지 알려진 치료법이라 하는 것이 고작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가는 것 정도였다고 하니,⁴⁰⁾ 실제로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의학적인 방법이 부재한 실정이었기에

38) 장상근, 「신경통 특집-늑간신경통의 진단과 치료」, 『성인병』(제189호), 1996년 10월 25일자, 6면.

39) 신홍범, 앞의 책, 198쪽.

결핵에 대한 공포는 상당했을 것이다. 결핵은 폐에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고, 폐결핵 혹은 폐병을 일으켰다. 그 균은 폐 조직을 점차 파괴하는데 흔히 폐상단부의 ‘얼룩’으로부터 시작해서 폐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조직을 무너뜨리고, 굵은 피나 혈청 같은 것이 섞인 삼출액을 대량으로 방출한다. 증상으로 는 기침과 고열, 피 가래가 나오고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고 몸이 빠르게 쇠약해져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⁴¹⁾

결핵이 문제가 된 것은 19세기 산업화의 진행과 관련한다. 과중한 노동, 불결한 주거, 부적절한 음식물, 생리적이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결핵이 유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했다.⁴²⁾ 또한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웠던 질병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핵요양소의 건립이 시급했으나 국가차원에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 1940년대에는 40만 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며 매년 4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요양소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선총독부가 취했던 대책은 고작 개인의 위생에 대한 강조 정도에 그쳤다. 곧 결핵을 개인위생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가래나 침을 뱉는 사람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였다.⁴³⁾

폐결핵으로 향하는 몸을 안고서 병원진료보다도 삶의 현장에서 ‘버티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평생을 병과 더불어 사는 몸으로 성장했던 채만식. 가난과 고통으로 인한 질병은 채만식에게 ‘적극적인 생의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타나토스의 충동을 자극하고 촉발하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⁴⁴⁾던 것으로 보인다. 채만식은 이러한 은유적 질병을 넘어서서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서서히 삶의 터전으로 잠식해오는 실제적 질병과 싸웠던 것이기에 그의 질병은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채만식에게 있어서 고통

40)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공급과 깨끗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신규환, 앞의 책, 51쪽.

41)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더스, 앞의 책, 253-254쪽.

42) 신규환, 앞의 책, 48쪽.

43) 박현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핵의 표상-나도향의 경우」, 『반교어문연구』(34), 반교어문학회, 2013년 2월, 271-276쪽.

44) 공중구, 앞의 글, 25쪽.

과 질병은 역설적으로 글을 쓰는 힘이자 생활의 원천이었다.

3.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채만식의 수필에 나타난 ‘질병’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이를 위해서 그가 앓았던 다양한 질병들이 수필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살폈다. 그 결과 신경쇠약, 신경통, 불면증,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 예민했던 청각, 소화불량(위장병), 늑간신경통(담)이 그려졌으며, 주변을 통해 폐결핵에 대한 공포스러운 인식이 그려졌음도 확인했다.

채만식이 그린 수필은 질병을 겪는 자신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고통스런 외침과도 같았다. 다시 말해 삶의 기록은 질병의 기록이었고, 현실에서 겪는 고통과 절망의 언어는 삶의 활자화된 노정이자 기표였다. 고통의 단순한 기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역설적으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되레 깨닫게 만드는 기록이기도 했다. 요컨대 채만식이 쓴 질병과 관련한 수필은 주관적 체험을 경험한 고백이기에, 각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의 글이 아니라 병을 겪는 당사자의 진솔한 경험이 담긴 고백이기에 문학사적으로도 그 의미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 및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채만식의 질병들이 작가 정체성이나 문학 창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밀도 있게 탐색하지 못한 점이 그러하다. 어쩌면 채만식의 아픈 몸은 개인의 질병이기도 하거니와, 식민공간의 질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채만식의 질병과 관련된 실증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추후 해결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기본자료

- 채만식, 『채만식 전집』(9-10), 창작과비평사, 1989.
채만식, 「서팔호실 탐방기-광인의 나라」, 『별건곤』, 1932년 1월.

2. 국내외 논저

- 공중구, 「채만식의 산문 연구」, 『현대소설연구』(6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5년 12월.
김미영, 「채만식의 수필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23), 숭실대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7년 9월.
김상선, 「채만식론-특히 그의 생애와 성격을 중심으로」, 『어문론집』(20), 중앙어문학회, 1987년 3월.
김용성, 「문학사탐방1-채만식의 탁류 선창」, 『한국일보』, 1972년 10월 15일.
김춘경 외 4인, 「신경쇠약」, 『상담학 사전』, 학지사, 2016.
김태완(정리), 「최초 공개하는 채만식의 유언장:“상여는 리어카...조문은 山野 꽃 한다발 가지고 오시든가”」, 『월간 조선』, 2015년 12월.
김흥기, 『채만식 연구』, 국학자료원, 2001.
박영남, 「절망감 우울증:의미있는 우울증의 아형인가?」, 『신경정신의학』(44권 4호), 2005년 7월.
박현수, 「식민지 조선에서 결핵의 표상-나도향의 경우」, 『반교어문연구』(34), 반교어문학회, 2013년 2월.
백철, 「1930년대 문단/문단회고」, 『인간 탐구의 문학:백철문학선』, 창미사, 1986.
빌 헤이스, 『불면증과의 동침-어느 불면증 환자의 기억』, 이지운 옮김, 사이언스북스, 2008.
송경호, 「기능성 소화불량증」, 『정신신체의학』(24권1호), 2016년 4월.
수전 손택,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 신규환, 『질병의 사회사-동아시아 의학의 재발견』, 살림, 2006.
- 신홍범, 『불면증, 당신도 치료될 수 있다』, 소라주, 2015.
- 이강욱, 「환청을 호소하는 정신분열증 환자의 이과학적 평가:예비연구」, 『정신병리학』(제12권 1-2호),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2003년.
- 이무영, 「채만식의 인간과 문학」, 『서울신문』, 1956년 4월 6일.
- 장상근, 「신경통 특집-늑간신경통의 진단과 치료」, 『성인병』(제189호), 1996년 10월 25일자.
- 채만식, 『채만식 전집 1-인형의 집을 나와서/염마』, 창작사, 1987.
- 최현식, 「문학가의 이상과 생활인의 비애」, 『채만식 문학의 재인식』, 1999.
- 프레더릭 F. 카트라이트-마이클 비더스, 『질병의 역사』, 김훈 옮김, 가람기획, 2004.
- 허만욱, 「수필문학의 이론과 비평, 학술연구의 진단과 방향」, 『어문론집』(제71집), 중앙어문학회, 2017년 9월.
- 허만욱, 「채만식 수필에 대한 근대성 기제와 현재적 함의」, 『우리문학연구』(57), 우리문학회, 2018년 1월.
- 허병식, 「폐병쟁이들의 근대-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결핵의 표상」, 『한국학연구』(36), 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5년 2월.
- 헨리 지거리스트,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이희원 역, 몸과마음, 2005.
- 홍윤철, 『질병의 탄생』, 사이, 2014.
- 황상익,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 한울림, 1998.
- 황상익, 『콜럼버스의 교환』, 을유문화사, 2014.
- 황임경, 「질병과 이야기-문학과 의학이 만나는 지점들」, 『서강인문논총』(40),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4년 8월.
- Anne Hunsaker Hawkins and Marilyn Chandler McEntyre 외, 『문학과 의학교육』, 신주철 외 옮김, 동인, 2005.
- 『한국생약보』(제214호), 1997년 3월 1일자.

【Abstracts】

Chae, Man-Sik's Body and disease

Gwak, Sangin

Chae, Man-Sik was known as a writer who suffered from numerous diseases in his life and eventually died of pulmonary tuberculosis. Therefore, this writing tried to combine medical knowledge with his "illness" in his essay. The reason why this writing paid attention to his essay to understand his disease is that his essay is an effective genre that reveals his story as a direct statement.

Chae, Man-Sik had suffered neurasthenia when he was middle school, and the disease became a chronic disease. As he grew up, he had suffered from insomnia, depressive disorder, alcohol dependence, dyspepsia, tinnitus, intercostal neuralgia and pulmonary tuberculosis with his poor life. Thus, this essay planned from the expectation that it could help to understand his body and disease in detail, unlike the literary or metaphorical approach to Chae, Man-Sik's life and disease, by combining his illness with medical knowledge.

Ironically, 'Chae, Man-Sik' and 'disease' are important because he secured his identity through his weakening body. In other words, he could communicate between his inner world and the outer through his painful body and gain insight into life and death. Since there has been no medical research on his body and disease, this writing can be considered as a fusion of literature and medicine. The record of Chae, Man-Sik's disease was a symbolic or written directly print of the language of suffering and despair in reality.

Key words : Chae, Man-Sik, neurasthenia, insomnia, depressive disorder, dyspepsia, tinnitus, intercostal neuralgia, pulmonary tuberculosis.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11월 18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11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